

# 큰스님 수행한담

## 모든것이 내탓입니다”



◇모두를 버리는 것을 화두로 삼고 수행하는 충담스님의 마지막 서원은 남북통일과 불국정도가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소신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사진은 1970년초 선암사에서 대중스님들과 함께 한 충담스님(왼쪽에서 두번째).

행을 쌓도록 하여라. 그리고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마음의 때를 없애며, 항상 말과 행동을 성실히 하여 표리가 없고, 자신의 제도를 뿐만 아니라 남도 구제하여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성불의 서원을 굳게 세워 많은 공덕을 쌓도록 하여라”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원력이 필요합니다. 범부중생이라도 한번쯤 이 세상을 정화해보겠다는 발심을 낸다면 발심을 낸 그때부터 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늙은 이 남자의 마지막 서원이 있다면 어찌할까 소신공양을 하며 회향하는 것

**불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체득하기도 전에 의심하면 대자유 얻을 기회 잃어요**

세행(八萬四千行)을 함께 하고 또 뜻을 함께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위정자들의 정쟁 속에 휩싸여 타의에 의해 16개 종단으로 갈라지다니 이제 의심이 넘는 종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승풍을 진작시키고 삼보를 호지하고 정재와 교권을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제종통합 원융회합의 정신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생사일여(生死一如)라 했어요. 나고 죽음이 한가지란 말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백년동인의 인생에 전전공공하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원인은 바로 죽고 사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일념으로 수행해 생사의 도리를 깨친다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본래 생사가 없는데 사람들은 착각하여 생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이 착각의 기발(起滅)이 막아지면 바로 그 자리가 흔들림없는 본래 마음이니, 그 흔들림없는 데에 죽음이 있을 수 없지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을

## 말과 행동 성실히하여 나와 남 구제해야 어렵고 힘들때 일수록 원력·발심 필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오후 3시쯤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눈이 멀 것이라며 말리고 있지만 나는 조금도 변함없이 정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뜰히 사경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지극한 마음으로 써 내려가는 것은 한량없고 그치않는 공덕을 쌓는 일이지요. 특히 <무량수경>에 실려진 부처님의 말씀을 사경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유연해지며, 삭막한 시대를 정화하고자 하는 서원이 저절로 생깁니다. <무량수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보살과 여러 대중에 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좌악이 넘치고 부정하여 진정한 즐거움이 없느니라. 쿠디 스스로 결단해서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더욱 많은 선

내버리는 것을 화두삼아 하고 있어요. 일념으로 정진, 참선을 하고 수양을 쌓아서 불생불멸하는 본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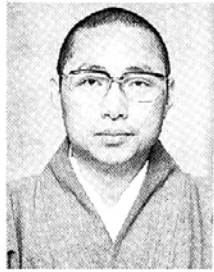
사람들은 간혹 나를 찾아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교의 목적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입니다. 즉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중생을 제도하여 사바오해를 불국정토로 만들어서 일체중생이 모두 상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요. 열불이나 간경, 참선, 주력 모두 성불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 세상에 나온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을 것이요, 만난 이는 누구든 헤어질 것이라

### 나와 경전



현우경



필원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어찌보면 인간의 삶은 시간이란 베풀어다 천을 짜듯 문장을 새기는 것이 아닐런지. 그래서인가? 곁에 두고 펼쳐보는 경전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회의와 의심이 미덕일 수 있었던 20~30대 젊은 시절에는 명징한 논리와 깊은 사유가 요구되는 <금강경>이나 <능엄경> 같은 류의 경을 자주 펼쳐서

...../ 어제의 무지함이 오늘을 돌고/ 오늘을 집착이 내일의 약속장소로/ 있는 곳도 모르는 채/ 지옥과 극락을 헤매이다/ 한가닥 인연으로/ 한관 도박이라도 하는 듯/ 돈오돈수를 잡으려 한다'고 노래했다. 출가사문이라면 어느 누구를 돈오돈수의 매력에 이끌리지 않았는가?

나만 불혹고개를 넘다보니 지금은 경이한 문체에 이야기가 있는 경전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 중 즐겨 보는 경이 <현우경>이다. 이 경은 십이분교(十二分教) 중 아바다나(비유의 이야기로 모은 경전)에 속한다. 그 내용과 구성을 보면 현재의 행위를 과거사의 이야기로써 설명한 것, 미래를 예언하는 시기, 현재의 행위에 따른 현재의 과보, 부처님이 되기까지의 부처님 전생이야기인 본생담 등 다양한 내용이 비유와 우화 형식으로 꾸러져 있다.

그러나 <현우경>에서는 깨달음을 도박이 아니라 구구절절히 이야기한다. 부처님같이 수행한 근기를 지닌 분도 아승지점의 세월을 수행하여 비로소 부처를 이루신 것이라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수행이라도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깨달음은 순간의 일이나 아승지점의 세월이 아니라 아승지점의 수행을 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경박한 아들에겐 진중함을, 지나치게 진중한 아들에겐 삶

## 중생들의 세상살이 그대로 펼쳐져 아승지점의 과보 보여준 비유설법

내가 <현우경>을 가까이 두고 좋아하는 이유를 몇가지 이야기해 본다. 우선 <현우경>에는 우리네 중생들 세상살이가 그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현우경>을 읽다보면 내가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가 된 듯한 기분이다. 내가 맡은 배역은 참으로 다양하다. 때론 오로지 법을 구하기 위해 신명을 바치는 구도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마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 스승 부인의 유혹을 거절한 연유로 백 개의 손가락을 자르러 다니는 봉두 난방의 거울리마가 되기도 하고 오백 명의 지중 하나가 되어 구원하다가 부처님을 만나 환희심으로 발심 출가하기도 한다. 또 어느새 인도 최강의 나라 국왕이 되어 만민을 호령하기도 하며, 천하절색의 미인이 되어 못남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호랑이, 코끼리, 소, 양무새 등이 되었다가 용왕이나 천인(天人)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는 드디어 부처님이 되어 미혹에 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퍼기도 한다.

어느 서양 문학가는 존재의 뿌리와 정신의 축을 잃고 부유하는 현대의 중생들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상태라 규정하기도 했다. 이런 이들에게 <현우경>은 사람이야말로 팔랑팔랑 부유하는 것털같은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반대로 지나친 존재의 무게를 떠맡고 사는 출가사문같은 이들에겐 사람이야말로 무거운 것임을 아나라고 가르쳐 준다. 내 경우 한없이 아득한 속의 심연, 중중무진으로 펼쳐진 화엄의 광활함, 이런 무거움으로부터 조금 비껴나고 싶을 때, 그때 <현우경>을 펼친다.

<현우경>은 천상으로부터 날짐승 길짐승, 지옥중생에 이르기까지의 육도 중생들이 때로 현명하게 때로 어리석게 엮여나가는 무중무진한 이야기의 세계를 열어보임으로써, 어리석고 못한 이들도 수행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의 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눅들지 않게 해준다. 또 깨달음에 대한 열정으로 조금더 조금더 아들에겐 느낌의 미약한 아승지점의 수행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생에서 생사를 결판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정리=윤기석 기자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釋筆(眞品)  
佛子體의 神祕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사업실제,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담담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 242-0255  
(02)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점순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절·염불·독경·참선·기도** [수련 안내]

상선배를 100일간, 하루 만백씩 100일간 100만배, 삼년동안 정지 않고 석가모니불 염불정진, 한문공강경 심안독, 한글 금강경 일만독 수행하며 특화된 수행의 비전을 테크닉을 공개 수련합니다.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①숨이 차고 험악하며 전하는 것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 것으로 정신 집중 안되고 폐와 심장 등의 신체에 무리가 오는 어리석은 수행이다. 들숨과 날숨을 절 동작에 정확히 대입하여 자연 단전 호흡되면 삼천배를 하여도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절할때 이루어 강력한 기운의 집중과 방출로 인생 감각, 몸살 안걸리고 당노, 치매, 중풍은 예방되고 치유된다.  
②염주독과 숫자세고 시계보면서 절하는 것은 나보같은 수행이다. 호흡과 동작에 숫자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헤아려지며 정신 집중이 좋아져 생각이 또렷도렷해지고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된다.  
③합장하고 절할때, 일어선때 우주의 밝은 기운이 몸에 쌓이는데 염불하면서 절하거나 입멸하고 절하면 기운이 빠져나가 몸이 흔들리고 힘이들며 몸살나게 되니 혀 입천장에 맡아붙여 단전에 쌓인 기운을 유통시켜야 생각이 나게 된다.  
④요가, 선제, 기공제, 단전행공, 명상제보다 동작과 호흡의 일치가 전혀 무리없이 쉽게 잘되며 장소 구애 없애고 돈반비, 시간반비 없애며 지극한 신심이 증명되고, 단기간에 효과 발휘하는 최고의 진장법이며 만인류는 필히 실천해야 할 수행법이다.

◎염불 釋 法 會 精 進  
올바른 자세가 계속 유지됨으로 졸림지 않고 피곤하고 지치고 피우지 않으며 갈수록 정신은 맑아지고 자꾸로 염불되고 자꾸로 단전 호흡되어 힘이 넘치게 되는 가장 쉽고 언제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이다.

◎참선 기초수행, 좌선호흡법, 염력기도법, 신비의 도인건강법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기본수행법 수련  
●매주 토요일 저녁9시~일요일 아침 8시 칠야몽명정진  
●예약수련,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을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 (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추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옥 옥관이 처음 10분후 붉은 순의 분광광선이 불발하다  
연속 사용전 1.5V 연속사용후 3.0V로 세내면만 상승

입파파(음)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화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에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대 단체별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료요  
과를 기록했다. (93.2.17 서술신문)

玉山家 옥관음 직령에서 서이만 효리가 있습니다  
현역사 후배들에게 전유는 계명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玉山家  
777-0105 (우편번호)

**納清 鑰器**

중요무형문화재 77호  
이 봉주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보급합니다.

納清 鑰器 製品 디자인을  
모방하여 생산 판매되는  
유사품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입·문의처**  
T. (0345)498-6262~5  
F. (0345)498-6265